

금요 수필

바이올린

냉장고 같은 인내가 바이올린을 주며 '작은 별' 동요를 커버하는 것이다. 첼로를 깔지만, 분명 다른 악기를 어떻게 하나며 대중 흥내는 내보았다. 네 손은 현악기를 하기에는, 특히 바이올린처럼 작고 가느다란 현을 사용하는 악기에는 손가락이 짧고 두꺼워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래도 악보는 첼로 악보처럼 어렵지 않고 악속하기에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

전국 문화재단 바이올린 강습회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몇 달 동안 기초만 배우면 되겠지 생각했었다. 지극도 몇 년째 강습을 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런 더욱 깊은 눈에 빠져있는 느낌이다. 한 권의 책을 마치고 다음 단계씩 오르는 재미와 좀 더 좋은 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다음대로 되지 않는다. 음악에 천재성이 있어서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악보를 외울 수도 없다. 첼로는 악보와 악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유리함이 있지만, 바이올린은 그럴 수 없기에 나에게서는 몹시 어려운 악기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저런 경계로 몇 년 동안 악기를 놓고 살았다. 이쯤 되면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첼로 옆에 데려온 자식처럼 서 있는 작은 악기에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커진다. 냉정고 같은 인내는 악기를 놓으려는 마음을 읽었는지 회고하는



박 영 임

수필가

악기를 주며 살았던 마음을 깨운다. 주변에 응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이올린에 다시 음기를 내보고 싶다. 또다시 찾아가 강습장에서 예전과는 다른 공기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소리가 대신하는지 선생님의 칭찬이 기쁘게 한다. 더 좋은 소리를 내고 싶어진다. 고래도 춤을 춘다는 칭찬이라더니 당리진 모습에 선생님의 칭찬에 더 열심히 내고 싶다. 한 권의 교재를 마치고 단계씩 올라며 새로운 연습법을 배우다 보니 악기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고민도 육신이지 싶어 마음을 접었다.

강남에 있는 병원에 정기 검진받은 날 터미널로 마중 나온 언니와 동행하여 야국 문을 열고 나오며 인내는 의류상가 쇼핑하러 가자고 한다. 서울에 오는 날이면 반드시 행하던 의류 쇼핑코스이지만 고개를 저었다. 낙원상가에 가보고 싶다는 말에 오십 년을 넘게 살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언니의 안내

를 받으며 그곳으로 출발했다. 문경 낙원상가와 가까운 붙어있지만, 지 하루 수많은 자가 오간다. 아주 오래된 낡은 상가 입구를 찾아 걸어 올라갔다. 호기심에 전설을 여러 번 읽어보고 찾아왔으니, 구경이나 신화 해가지 낙원은 몇 미터까지 않아서 구산되었다. 수많은 땅은 악기가 높은 천장까지 싸여있고 세상의 모든 악기는 이곳에 있었다. 누구 하나 호객하는 이도 없기에 들어가 구경을 청했다. 진정한 주인은 지제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냥 나을 수가 없어서 바이올린을 보고 싶나 하니 여러 종류의 악기를 비교 설명해 주었다.

1878년 독일에서 탄생했다는 악기의 소리와 무게를 들여보고 단절보았다는 것이 이곳에 온 목적은 넘치게 달성한 것 같다. 130년 가까이 된 악기에서 나는 소리가 청아하고 위풍당당한 소리에 가슴이 뻐다. 더욱 열심히 내어 악기의 주인이 되고 싶어졌다. 악기에 잘 어울리는 연주자

가 되고 싶어졌다. 수준에 맞는 악기를 하나 골라 결정하고 나니 결에서 조용히 지켜보면 언니가 악기값을 결제 후 선물이라며 웃는다. 이제 언니에게 좋은 곡을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연습해야지 다짐해 본다.

연주자는 집과 악기를 놓고 선택하려면 고민도 하지 않고 악기를 선택한다는 말이 신과 나는 낙원상가 둘러보기였다. 이곳에서 3대째 영업한다는 또래 주인장과 차 한잔 나누며 낙원상가의 역사와 전통 또한 대물림이 될 흐릿듯 그렇게 이어진다고 했다. 낙원상가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음악가들이며 연주자들이라 자부심을 품고 아들에게 물려주지만,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이 음악가로 남아있고 싶나 한다.

선물로 받은 바이올린은 잘 보관하고 기존 악기로 연습하지만 분명 악기 소리는 예전과 다른 더 맑고 강한 소리가 나는 것만 같다. "못난 독수가 여장 뒀만 한다."는 속담이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지 싶다.

*박영임 수필가는 2005년 계간 '문예연구'로 등단했으며, 2008년 '한국 농촌문학작품상'과, 2024년 '문예연구' 작가상을 수상했다. 현재 전북 문학, 문예연구문학회, 순수필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으로 '조용박 이야기'가 있다.

사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25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0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14개 시·군 전시장 등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고요 속의 울림'이라는 주제 아래 전통을 잃지 않고 시대와 호흡하는 서예의 길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 50개국, 국내외 작가 3100여명이 참여했다. 꾸준한 해외 작가 발굴 등으로 단순한 국내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핵심인 '서예로 만나는 경전'은 1000명의 서예인과 종교인들이 천주교·불교·천도교·기독교 등 각기 다른 전통을 담은 경전들을 필사함으로써 서예라는 매개를 통해 화합하고 이해하는 장으로 마련했다.

K-서예 아트 전시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 서예의 새로운 지평을 열 계획이다. 디지털 영상서예전은 미디어 기술과 결합해 관람객들에게 몰입감 있는 체험을 제공했다.

'자연·사람·한글 먹빛전', '청년 시대소리-정음(正音)' 등 다채로운 전시가 마련돼 전통과 현대, 국내와 국제를 아우르는 대규모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송하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은 "이번 전시는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한글 서예를 중심으로 한 전시 작품들로 구성된 우리 전통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예술적 도전을 응원하는 세대간의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필 '가왕' 입증

추석 연휴 동안 가수 조용필의 단독 공연 실황 영상이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가왕'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시켰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대한민국 유튜브 급상승 검색 주제 3위에 '조용필'이 올랐다.

급상승 검색어 항목에서도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노래 모음'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조용필은 지난달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KBS 특집 방송 '광복 80주년 대기확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녹화를 겸한 콘서트를 열고 28곡을 열창했다.

해당 공연은 추석 당일 방송돼 전국 기준 시청률 15.7%를 기록하며 같은 시간대 전 채널 프로그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 관심도 지표에 따르면 조용필 관련 검색은 이달 3일 13에서 시작해 방송일인 6일 99로 급등했고, 7일에는 최고치인 100을 기록했다. 본방송을 통한 시청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인기가 이어졌다.

지역별 관심도는 부산, 대구, 서울, 경남, 전남 순으로 높았다. 인천, 제주, 경기, 충북, 전북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KBS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공연 영상들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바람의 노래' 62만 회, '모나리자' 47만 회, '킬리만자로의 표범' 40만 회, '그 겨울의 찻집' 39만 회, '꿈' 38만 회 등 주요 곡 영상이 모두 수십만 회를 넘겼다.

방송 이후에도 조회수 증가세가 이어지며 조용필의 세대를 초월한 대중적 영향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풍자 그림 들고 시위하는 아르헨 반정부 시위대



22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미국 대사관 밖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허버트 말레이 대통령을 풍자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호박 축제에 전시된 사람 얼굴 조각 호박들



21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인근 벨리츠 마을의 클라이스트프 농장에서 열린 연례 호박 축제에 사람 얼굴 형상을 조각한 호박들이 전시돼 있다. 올해 축제 주제는 '강한 여성들'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